

한-IAEA 경수로 협력강화 방안 : 2003년도 이행 결과
Korea-IAEA Enhanced Cooperation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at
LWRs : Results of 2003

안승호, 박완수, 정상태, 박승식, 나원우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약

우리나라 국가체제의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IAEA 및 원자력선진국과의 협력이 활발하여지고 있다. 특히 '99년부터 추진을 시작하여 2001.10.17 양해각서에 서명, 2002년부터 국내 전 경수로에 적용되고 있는 경수로에 대한 한-IAEA 협력강화 방안은 IAEA와 단일국가와는 처음으로 New Partnership Approach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적으로는 IAEA의 사찰량 감소를 통하여 시설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국가검사 측면에서도 효율적, 효과적 안전조치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 중 국내 15호기의 경수로에 대한 계량관리 검사 횟수는 97회였으며, 이 중 물자재고검사와 같이 IAEA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검사 횟수는 57회, 경수로협력강화 방안에 따라 무작위 참여 대상인 검사 횟수는 57회였다. 무작위 참여 대상 검사 중 IAEA는 17회 만을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40회의 검사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IAEA에 송부하였다. 경수로 호기당 국가검사 평균 횟수는 2001년에 9.2회, 2002년에는 7.4회, 2003년에는 6.5회 실시하였다. IAEA의 사찰횟수는 2001년에 9.2회, 경수로 협력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에 5.2회 2003년에는 3.8회로 경수로 협력강화 실시 후 사찰량이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는 경수로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을 확대하여 핵연료 가공 시설, 중수로, 연구시설 등 타 시설 형태에 대한 IAEA와의 협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